

## 한국어 형용사와 비대격\*

김 건 희

(KAIST 인문사회과학부)

### 1. 문제 제기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와 구별되기 어려운 형태, 통사적 양상을 보여 두 품사를 구별하는 변별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형용사의 품사적 위상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는데, 즉 형용사란 품사가 동사나 명사의 거대 품사와 같이 대등하게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견해는 형용사를 다른 동사들과 함께 새로운 부류의 용언 즉 비대격 용언으로 보는 것이다(유현경(1998), Yeo(2004), 이 건수(2005)) 그러나 한국어 형용사를 비대격 용언으로 보는 것은 좀 더 신중

---

\* 이 논문은 한국어학회 제2회 국제학술대회(2008년)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다듬은 것이다.

**주 제 어:** 비대격,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 장형 부정문, 주격 종출 구문, 지정어, 외부 논항  
unaccusative, subject-object raising construction, long-form negative construction,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 specifier, external argument

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형용사를 비대격 용언으로 보는 주요 논거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형용사가 동사와 같은 형태, 통사적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동사와 형용사 양용 범주로 등재되며 동사, 형용사의 경계에 있는 용언들의 경우 비대격 용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둘째 몇몇 형용사가 비대격을 지지하는 근거에 들어맞는다고 해도 일반적인 의미, 형태, 통사론적 기준에 의해 형용사로서의 자격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큰 틀에서 형용사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셋째 한국어에서 비대격을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된 논거들이 Perlmutter(1978) 이래로 논의된 비대격 이론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들도 존재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요구된다는 점이다. 넷째 비대격 논의의 시작과 끝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형용사와 동사의 구별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불완전 동사의 경우 형태, 통사적 측면에서 다른 동사와는 달리 제한된 모습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형용사 중에서도 형용사의 전형적인 형태, 통사적 특징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즉 정도성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여 이에 따라 전형적인 형용사, 비전형적인 형용사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용사와 동사의 구별 논의에서 한가지 더 주장하는 바는 기존 논의는 주로 형태, 통사적 분류 기준만 제시되었으나 의미 기준도 그 역할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각 장의 논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비대격 논의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다. 3장은 비대격을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된 논거들에 대해 형용사와 관련시켜 이러한 논의가 형용사의 비대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비대격 논의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형용사구(AP)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동사구 껍질 이론(VP shells) 등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어 형용사의 다층적인 통사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다. 5장은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기준에 관한 것으로 동사, 형용사 구별에 관한 범언어적인(유형론적) 최근의 견해 소개와 함께 한국어 동사, 형용사 구별 기준이 좀 더 유연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겠다.

## 2. 비대격 논의의 선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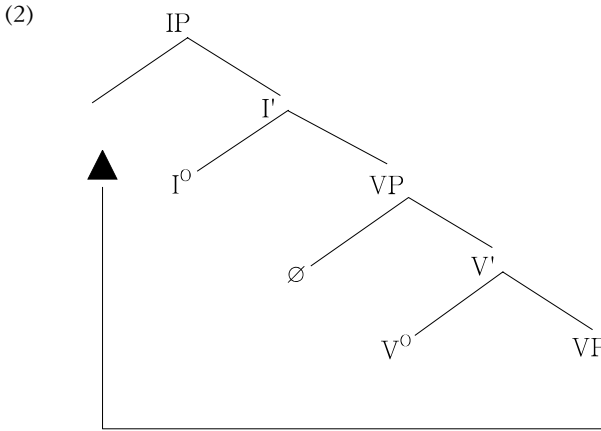
비대격(unaccusativity)에 관한 논의는 Perlmutter(1978)로부터 시작되었다. Perlmutter(1978)은 자동사 부류는 동질적이지 않고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부류는 비대격(unaccusative)이며 다른 한 부류는 비능격(unergative)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비대격 가설(Unaccusative Hypothesis)로 알려진 Perlmutter(1978)은 비대격 동사의 유일한 논항(sole argument)은 피해주(patient)와 같은 속성을 가지는 반면 비능격 동사는 행위주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비대격과 비능격에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기저의 통사 구조를 제안하였다.

- (1) a. 비능격 NP<sub>[VP V]</sub>  
 b. 비대격 \_\_\_<sub>[VP V NP]</sub>

이러한 논의는 외부 논항과 내부 논항을 구별한 Williams(1981)의 제안과 결합되었다. 그에 의하면, 일반 타동사, 비능격 술어의 주어는 외부 논항이며, 타동사의 목적어와 비대격 술어의 주어는 내부 논항이라고 하였다.

이후 이러한 비대격 논의의 흐름은 통사적, 의미적, 절충적 논의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비대격에 관한 통사적 접근에는 Rosen(1984)과 Burzio(1986)가 있다. 이들은 모든 비대격 술어는 의미 부류에 관계 없이 내부 논항만 선택함으로써 외부 논항이 결여되어 대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Burzio(1986)의 논의는 Burzio(1986)의 일반화(generalization)로 알려져 국내의 비대격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소개되었다. Burzio(1986)의 일반화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비능격 동사는 외부 논항을 가짐으로써 구조적(대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외부 논항을 가지지 못한 비대격 동사는 대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GB 이론의 틀에서 비대격 술어의 통사 구조를 (2)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비대격 술어의 유일한 내부 논항은 직접 목적어 위치에서 IP의 지정어(Specifier)로 이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동 동

기는 모든 절이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Chomsky(1982)의 EPP(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Burzio(1986)의 주장에 대하여 이후 외부 논항이 결여되었지만 대격을 부여하는 동사들이 존재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일례를 소개하면 Babby(1989:16-17)는 우크라이나어를 토대로 비인칭 수동(impersonal passive)에서 대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반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후 Babby(1994:28-29)에서도 대격이 부여된 비인칭 피해구문(Adversity Impersonals)도 제시하였다.

(3) 비인칭 수동(impersonal passive)

a. Cerkvu bulo zbudovano v 1640 roc'i  
 church-ACC was built in 1640 year  
 'The church was built in the year 1640'

b. Bulo organizovano ekspedyciju  
 was organized expedition-ACC  
 'An expedition was organized'

(Babby 1989:16-7)

(4) 비인칭 피해구문(Adversity Impersonals)

a. Ego            pereexalo        avtomobilem  
 him-ACC       ran-over        automobile-INST  
 ‘A car ran him over’

b. Nogu            naterlo            sapogom  
 foot-ACC       rubbed            boot-INST  
 ‘A boot irritated his/her foot’

(Babby 1994:28-9)

Babby(1989, 1994)의 논의는 Lavine(2000)이 이어가 (3), (4)와 같이 이러한 대격이 남아있는 비대격 술어에 대해 파생과 관계된 형태론적인 주장을 하였다. ‘동사와 동사 선행 명사구의 일치 여부가 비대격 술어와 연관된다.’ 다시 말해 주어와 동사의 일치 관계를 나타내는 비인칭 일치 형태소(-o/zbudovano, organizovano, pereexalo, naterlo)가 존재하면 대격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Burzio(1986)에서 제시한 대격 부여 여부로 비대격을 판단하는 것, 즉 대격 부여 여부가 비대격의 결정적인 특징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비대격에 관한 의미적 접근에는 Van Valin(1990), Dowty(1991)이 있다. 이들의 논의는 비대격에 관해 의미적 특징(행위성, 상태성)을 중심으로 그 변별 기준을 삼았다. 따라서 비대격은 몇몇 한정된 통사적 기준에 의해 어떤 동사들은 비대격으로 혹은 어떤 동사들은 비능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통일된 통사적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비대격에 관한 의미적 접근을 위주로 한국어에 적용한 예는 김영주(1990)가 있는데 김영주(1990:65-89)에서는 [상태성]과 [행위성]의 여부로 서술어들을 구분하였다. 동사의 [상태성] 자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형의 ‘-고 있다’와의 결합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동사의 [행위성] 자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령형과 청유형의 가능 여부 및 ‘노력하(다), 당부하(다)’와 같은 동사의 종속절로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그 결과 [-상태성], [-행위성]을 가진 부류들이 비대격 동사가 된다고 하였다.

셋째 통사적, 의미적 양쪽 접근을 수용한 절충적 주장이 있다. Levin and

Rappaport Hovav(1995)는 비대격은 통사적으로 통일된 현상이지만 비대격과 비능격의 구별은 의미적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다. Levin and Rappaport Hovav(1995:185-189)는 ‘walk, run, hobble’과 같은 행위성 이동 동사의 경우 (5a)와 같이 논항을 취하지 않으면 비능격이지만, (5b)와 같이 방향구를 취하면 비대격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5) a. They swam. unergative  
 b. They swam apart. unaccusative  
 \* They swam themselves apart.

Levin and Rappaport Hovav(1995)는 각 동사가 기본적으로는 비능격이지만 방향 전치사구가 존재함으로써 어휘적 의미 추이(변이)(lexical meaning shift)를 겪어 비대격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대격 논의에 관한 국내의 논의를 소개하면 앞서 소개한 김영주(1990), 고광주(1994, 2001), 유현경(1998)이 있다. 비대격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인 고광주(1994, 2001:58-63)에서는 비대격 동사 구문의 통사적 근거로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의 격교체, 장형부정 구문의 격교체 현상, 주격중출 구문의 형성, 용언형 관용어의 형성, 타동사와의 연속동사 형성을 들었다. 유현경(1998:353-360)에서는 비대격의 통사적 근거(장형 부정의 조사 교체, 시간과 빈도부사어의 조사 교체, 연속동사 구성, ‘명사구+용언’ 구성의 관용 표현의 생산)를 바탕으로 형용사의 ‘주격중출 구문’ 형성과 ‘명사+하다’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형용사의 비대격을 주장한 논의는 유현경(1998:361)으로 앞서 소개한 논거들을 근거로 일부의 자동사는 동사보다 형용사와 통사적인 특성을 같이 하는데 이러한 자동사와 형용사를 비대격 서술어로 묶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Yeo(2004:1032)에서는 Baker(2003)의 ‘형용사가 비대격이 아니라 비능격이다’라는 주장과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주격중출 구문’, ‘주격과 대격의 교체’의 특징을 보여 비대격 동사라고 주장하였다. 이건수(2005:228)에서는 동작성 ‘하’ 구문의

‘하’와 상태성 ‘하’ 구문의 ‘하’는 절을 보충어로 택하는 동사라는 공통적 특성을 공유하나 하위범주의 측면에서 전자는 타동사, 후자는 비대격 동사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비대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소개하였는데 관계문법을 기반으로 한 Perlmutter(1978)의 비대격 제안 이후 비대격 논의는 많은 다양한 언어들에 토대로 그 가능성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받아들인 논의는 통사적 확인 기준에 치우친 1980년대 GB식의 Burzio(1986) 위주로 논의되었거나 비대격 이론에서 벗어난 모호한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비대격을 규정지으려 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비대격 확인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이들 확인 기준에 형용사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 3. 한국어 형용사의 비대격을 지지하는 근거들

이번 장에서는 한국어 비대격 논의에서 비대격에 대한 통사적 근거들을 검토해 보겠다. 특히 비대격을 지지하는 근거들에 반하는 자료로서 동사와 형용사의 경계에 있는 용언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동사와 형용사의 비변별성이 결코 형용사의 비대격으로 귀결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 3.1. 주어 - 목적어 인상 구문<sup>2)</sup>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은 비대격의 대표적인 확인 기준이다. 고광주(2001:58-59)에서는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은 (6)과 같이 내포문의 서술어

2) 이러한 인상 구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변형론적 관점에서 보는 입장과 복합 동사 형성으로 보는 입장 등 그 형성 원리에 대해 여러 가지 선행 논의가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비대격 논의와 형용사와의 관련에 주목한 것으로, 이러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보다는 기존 비대격 논의에서 그 근거로 일관되게 제시된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에 직접 형용사들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그 논의를 한정시켰다.

가 비대격 동사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6) 비대격동사

- a. 나는 영희가/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 b. 나는 철수가/를 죽었다고 생각한다.

(7) 비능격동사

- a. 나는 영수가/\*를 갔다고 생각했다.
- b. 나는 아이가/\*를 밥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비대격의 확인 기준인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을 형용사에 적용해 보면, (6)에서 ‘예쁘다’와 같은 형용사는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좀 다른 성격의 형용사에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을 적용해 보겠다. ‘굳다, 밝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형용사와 동사로 기재된 대표적인 양용 범주이다. 이러한 경계의 형용사들에 대해 일관되게 비대격의 근거가 들어 맞는다면 자동사와 같은 비대격 용언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양용 범주 용언들이 비대격과 관련하여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굳다’를 살펴보면 아래에서와 같이 동사로서의 ‘굳다’인 경우 비대격 용언처럼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을 허용하지만 형용사로서의 ‘굳다’인 경우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밝다’에서는 형용사로서의 ‘밝다’인 경우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을 허용하지만, 동사로서의 ‘밝다’의 경우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8) 굳다

- a. 나는 떡이/을 벌써 굳었다고 생각했다. <동사>
- b. 반복된 실패로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결심이/\*을 굳었다고 생각했다. <형용사>



(9) 밝다

- a. 일행은 날이/\*을 밝았다고 생각했다. <동사>
- b. 선생님은 조명이/을 너무 밝다고 생각하셨는지, 얼른 전등을 끄셨다. <형용사>

이와 같이 동사, 형용사로 모두 등재되어 그 범주적 정체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술어의 경우 비대격 용언의 통사적 근거에 들어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살펴보면, 다음 형용사들은 동사 범주가 포함된 합성 형용사들이다. 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동사 혹은 형용사로 등재된 것들로 앞에서 살펴본 ‘굳다, 밝다’와 같이 형용사와 동사의 경계에 있는 대표적인 용언들이다.

(10) 동사범주가 포함된 합성 형용사

뛰어-나다, 유별-나다, 힘-들다, 건방-지다, 기름-지다, 알-차다, 얼룩-지다, 활기-차다

이성현, 장재성, 홍재성(2004:226)

이러한 동사 범주가 포함된 합성 형용사들의 경우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역시 일관되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나는 아이들이/을 활기차다고 생각했다.

- 나는 빵이/을 기름지다고 생각했다.
- 내가 이제 철수가/를 늙었다고 생각했나 보다.
- 나는 핏자국이/\*을 얼룩졌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에 대하여 동사와 형용사 경계에 있는 술어들을 대상으로 그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지만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 만약에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동사와 형용사를 아우르는 비대격 술어가 되

며 이는 통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역시 비대격 술어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 3.2. 장형부정 구문의 격교체 현상

비대격의 통사적 확인 기준으로 많이 논의된 것이 장형부정 구문의 격교체 현상이다. 고광주(2001:59)에서는 장형부정 구문에 나타나는 조사 ‘-이/가’와 ‘-을/를’ 사이의 교체 현상에서도 비대격동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 (12) a. 날씨가 춥지를/가 않다.  
b. 도둑이 잡히지를/가 않는다.  
c. 기차가 오지를/가 않는다.
- (13) a. 아이가 울지를/\*가 않는다.  
b. 철수가 오지를/\*가 않는다.  
c. 아이가 밥을 먹지를/\*가 않는다.

이러한 장형부정 구문의 격교체 현상에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능격과 비대격의 경우 왜 모두 ‘-을/를’이 허용되는가?, 둘째 비능격의 경우 왜 ‘-이/가’를 허용하지 않는가?, 셋째, 비대격의 경우 왜 ‘-이/가’를 허용하는가?

첫째 비능격과 비대격의 경우 모두 ‘-을/를’이 허용되는 이유는 특별한 예를 언급하지 않고도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즉, 장형 부정 구문의 ‘-을/를’이 구조격의 ‘-을/를’이 아니라 보조사적인 강조의 의미를 지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격으로 인정한 문장들에서건 그렇지 않은 문장들에서건 모두 장형 부정 구문에서 ‘-을/를’이 허용되는 것이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비능격의 경우 왜 ‘-이/가’를 허용하지 않는가?

- (14) a. 영수가 [달리지를/\*가 않았다.]  
 b. 아이가 [밥을 먹지를/\*가 않았다.]

행위주인 지정어가 명백히 주어와 동사구를 분리하여 동사구 내의 격 요소인 ‘-을/를’은 허용하지만, ‘-이/가’의 동사구 내의 격요소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비대격의 경우 왜 ‘-이/가’를 허용하는가?

- (15) a. 도둑이 잡히지를/가 않는다.  
 b. 기차가 오지를/가 않는다.

주어인 ‘도둑이’가 행위주인 지정어가 아니며 따라서 ‘도둑이’와 ‘잡히지가 않는다’의 경계가 비능격의 경우처럼 명백히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형부정 구문의 격교체 현상’을 앞에서 살펴본 동사와 형용사 경계에 있는 예문들에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6) a. 떡이 굳지가/를 않았다. <동사>  
 b. 결심이 굳지가/?를 않았다. <형용사>

- (17) a. 날이 밝지가/를 않았다. <동사>  
 b. 조명이 밝지가/를 않았다. <형용사>

- (18) a. 아이들이 활기차지가/를 않았다.  
 b. 핏자국이 얼룩지지가/?를 않았다.

‘-가’와 ‘-를’을 취한 문장들의 문법성 판단이 애매하지만 필자의 직관의

로는 모두 문법적으로 생각이 된다. 즉, 이들은 대부분 격교체가 허용된다. 이는 이들이 비대격 용언이어서가 아니라 ‘-를’이 강조의 보조사와 같은 의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장형부정 구문의 주격, 대격 교체 여부는 행위주가 명백하면 그 격(주격)이 동사구 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통사 현상으로 설명 가능하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의 경계성 용언들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대격의 근거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비능격, 비대격에 모두 대격이 나타나 외부 논항(행위주)를 취하면 대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비대격 이론과 결부시킬 수 없다.

장형부정 구문의 격교체 현상은 비대격 이론을 단순히 표면적 격교체에 매달려 잘못 적용한 예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비능격 동사가 부여하는 격은 표면적인 격(보조사 포함)이 아니라 문장의 주격과 목적격과 같은 명백한 구조적이고 비대격 동사가 부여하지 못하는 격도 구조격(대격)이다. 따라서 장형 부정 구문의 ‘-지 않’에 들어가는 ‘가’와 ‘를’은 본래의 비대격에서 말하는 격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형부정 구문의 격교체 현상’이 비대격에 대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부정문과 ‘-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3. 주격중출 구문

형용사는 주격중출 구문을 자유롭게 형성하며 이러한 주격중출 구문을 비대격의 근거로 보는 논의가 있다(유현경(1998:353-357), Yeo(2004: 1030), 고광주(2001:60) 참조). 특히 유현경(1998:356)에서는 (19)와 같이 동일한 어휘라도 비대격 서술어로 쓰인 경우에만 주격중출 구문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였다.

(19) a. 이 찌게는 맛이 갔다.

→ ?이 찌게의 맛이 갔다.

→ 이 찌개는 아직 맛이 가지(를/가) 않았다.

b. 철수의 동생이 갔다.

→ \*철수가 동생이 갔다.

→ 철수의 동생이 가지(를/\*가) 않았다.

(19a)와 (19b)의 ‘가다’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19a) ‘맛이 가다’는 언어 관계를 형성하는 관용구로 (19b) ‘가다’와는 명백한 의미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의미 차이는 통사적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가다’가 주격 중출이라는 통사적 증거를 제시하려면 비대격의 주어와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가 그 특징을 공유한다는 식의 통사적 증거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에 기반한 통사적 근거는 인정하기 어렵다.<sup>3)</sup> 주격중출 구문에 관한 것은 한국어 형용사의 다층적인 통사 구조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4장 형용사의 통사 구조 도식에서도 주격중출 구문이 비대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 형용사에 적용된 비대격 논거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대격 이론은 GB식 이론을 토대로 했으므로 이후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 동사구 겹질 이론 등 주어의 D-structure(심층 구조)에 관한 다양한 통사 이론 변화로 ‘주어’의 위치가 전적으로 직접 목적어 위치에서 이동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 비대격 이론에서는 단지

---

3) 이처럼 통사적인 요소와 의미적 요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별이 필요한데 앞에서 설명한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에서 Wechsler and Lee(1995)에서는 형용사 ‘필요하다’의 경우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의 허용 여부가 일관되지 않음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 (1) a. 톰은 내가/\*를 차를 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b. 톰은 아이들이/를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의미적인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즉, (1b)는 그 술어 ‘필요하다’가 대격의 항상적 의미(본유적 의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Yeo(2004:1024)에서도 주장했듯이 이러한 설명은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이라는 통사적 현상의 반례에 대해 의미적인 것으로 설명하려 하고 있는 모순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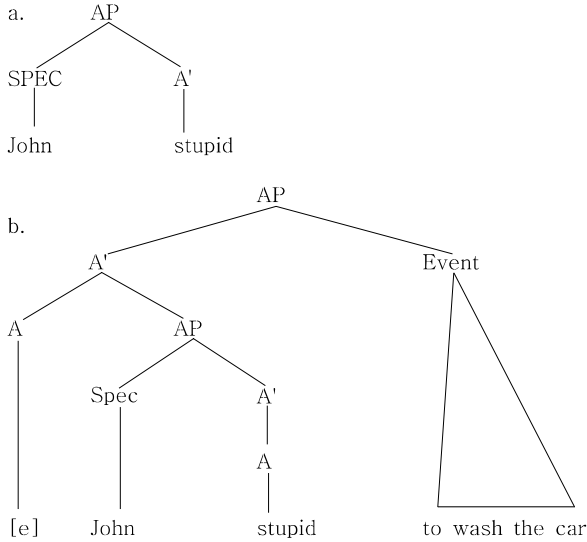
Burzio(1986)의 일반화를 역면 그대로 받아들여 특히 ‘대격’과 ‘주격’의 교체에만 주목하였다. 물론 Burzio(1986)의 일반화 등으로 한국어 비대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초기의 비대격 이론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지 모른다. 그러나 예를 들어 ‘대격과 주격의 격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Burzio(1986) 이후 앞서 소개한 비대격에 대한 반례를 제시한 Babby(1989, 1994), Lavine(2000)의 이론에서도 ‘대격’을 구조격으로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비대격 판단 근거로 제시된 ‘장형 부정 구문의 격교체’의 주격과 대격은 구조격이 아니라 보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비구조격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격에 관한 통사적 접근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 보아야 할 관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비대격 이론에 대해 통사 이론의 변화에 따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는 비대격 이론에서 통사 이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개념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격 이론은 통사 이론으로부터 시작했고 한국어에 적용된 비대격 이론이 대부분 통사적인 접근이므로 다음 장에서 이러한 통사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더 고찰해 보겠다.

## 4. 통사 이론의 변화와 비대격 이론

### 4.1. 형용사구(AP)의 위상에 관한 두 가지 견해

형용사구(AP)에 관한 가장 중요한 관점은 형용사구를 동사구와 대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형용사구에 관한 대표적인 통사적 견해들을 살펴보면 Stowell(1991)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통사구조를 제시했는데 (20b)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형용사의 통사구조이다. Stowell(1991)은 논항이 외부적이라는 것은 동사구에 대해서 외부적이 아니라, 의미역할을 부여하는 XP에 대해 외부적이라고 적용하여 형용사구(AP)를 지정어(specifier)를 관할하는 동사구(VP)와 대등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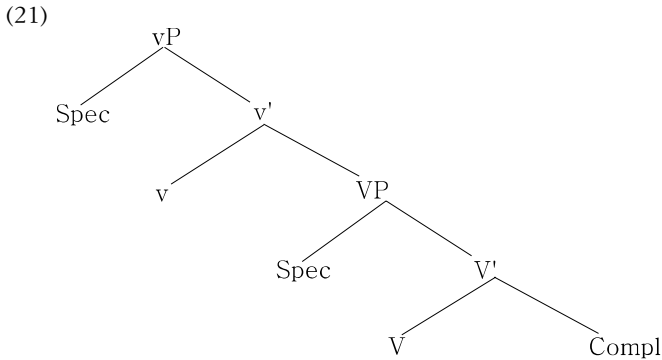


반면에 Baker(2003:66)는 형용사구를 동사구와 대등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동사구(VP)는 지정어(specifier)를 직접 관할하지만 형용사구에는 지정어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연하자면 형용사구(AP)에는 서술구(PredP)가 부과되어 이 서술구가 지정어를 관할하고 형용사구는 지정어를 관할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서술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한국어 학교 문법의 이중 주어 구문과 비슷하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와 서술절의 주어, 두 개의 주어를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주어를 관할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서술구가 하는 Baker(2003)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형용사구(AP)를 동사구와 대등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서술구(PredP)와 같은 도움을 받는 보조적인 기능의 구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접근의 핵심은 지정어(specifier)와 관련된 주어의 문제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주어의 위치에 대해 동사구 껍질 이론과 관련시켜 더 살펴보겠다.

## 4.2. 동사구 껍질 이론(VP-shells)과 한국어 형용사

Chomsky(1995)의 동사구 껍질 이론에 의하면<sup>4)</sup> 동사구는 단층적인 구조(VP)와 다층적인 구조(vP, VP)의 이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내부논항은 하위 동사구(VP)의 지정어와 보충어의 위치를 차지하며 외부논항은 상위 동사구(vP)의 지정어(specifier)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층적인 동사구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도식하였다.



의미역할과 관련지어 상위 동사구의 지정어는 행위주나 원인의 의미역할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곧 외부논항의 의미역할이다. 따라서 상위 동사구가 존재하면 외부논항, 곧 행위주나 원인을 가지며, 술어의 성격까지 결정짓는 것이다. 곧, 상위 동사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외부 논항이 없으므로 이는 비대격의 술어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단층적인 하위 동사구 구조는 외부 논항이 없는 비대격 술어의 구조이고, 다층적인 상위 동사구 구조는 외부 논항이 존재하는 비능격의 구조인 것이다.

Bennis(2000)는 심리 술어의 구조를 동사구 껍질 이론에 입각하여 네덜란드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먼저 술어를 상위 동사구가 없는 단층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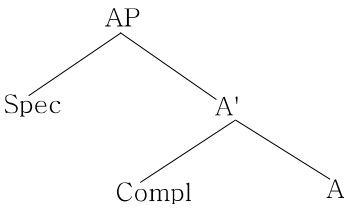
4) Chomsky(1995)와 Bennis(2000)의 논의는 김건희(2005)에서도 자세히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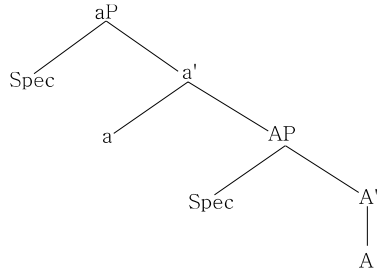
하위 동사구 구조와 상위 동사구가 있는 다층적인 구조로 나누었다. 전자는 비대격 술어이고, 후자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상위 동사구가 동적이면(dynamic) 행위주의 의미역할을 가지고, 상위 동사구가 정적이면(static) 소유주의 의미역할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Bennis(2000)는 상위 동사구의 상적인 차이는 곧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으로 동사구 껍질 이론을 형용사구 껍질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논의를 형용사 껍질 이론으로 발전시켜 아래와 같이 다층적인 비대격 형용사와 다층적인 비능격 형용사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22)

a. 비대격 형용사의 구조



b. 비능격 형용사의 구조



Bennis(2000)의 논의는 심리 형용사와 관련하여 비대격 형용사류와 비능격 형용사류의 두 부류로 나눈 것이다. 이러한 형용사구 껍질 이론에 기반한 한국어 형용사의 통사적 구조에 대해서는 김건희(2005)에서 제시하였으나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더 이상 이 논문에서는 제시하지 않겠다. 다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비대격 논의와 관련한 형용사구에 대한 정교한 고찰이다. Perlmutter(1978)의 비대격 이론은 Williams(1981)의 외부 논항 및 내부 논항과 결합되어 그 이론적 틀을 공고히 했다. 이후 외부 논항이 결여되면 대격이 부여될 수 없으며 비대격 술어의 주어가 직접 목적어 위치에서 이동된 것이라는 Burzio(1986)로 정리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비대격 술어의 주어가 직접 목적어 위치에서 이동된 것이라는 GB식의

Burzio(1986)의 논의에 대해 이러한 동사구 껍질 이론은 논항 구조와 통사 구조를 연결시켜 재고해 볼 여지를 갖게 한다. Chomsky(1995)와 Bennis(2000)로 이어진 논의는 형용사의 통사 구조가 단층적이 아니라 다층적인 통사 구조의 모습을 가지는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어 형용사에 살펴보면 한국어 형용사의 통사 구조는 동사의 구조 못지 않게 다양한 논항을 가지는데,<sup>5)</sup> 과연 이러한 다층적인 통사 구조의 논항들이 모두 내부 논항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다시 주격 중출 구문에 대해 고찰하면 고재설(1999)는 기존의 주격중출 구문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두 주어 사이의 관계에 치중하여 주격중출 구문의 기저 구조를 (23a)와 같이 보았지만 (23b)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3) a. {[NP1-의 NP2]-가 A}  
 b. [NP1-이 [NP2-가 A]]

줄고(2005,2006)에서도 주격중출 구문의 구조를 (23a)가 아닌 (23b)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였는데 고재설(1999)와는 달리 제2명사구(NP-2)가 아닌 제1명사구(NP-1)가 지정어(specifier) 위치를 차지하는 문장 전체의 진정한 주어라는 것을 다양한 기제로 확인하였다. 부연하자면 두 논항이 주격 조사를 취한 형태가 나타나는 주격중출 구문에서 어떤 논항이 주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체존대 ‘-시-’와의 일치 관계, 복수 접미사 부착, 관계 관형절의 표제 명사 되기, ‘-어 하다’ 구문과의 대응의 기제로 살펴보았다. 결국 주격중출 구문의 다층적인 구조는 껍질 이론과 관련시킬 수 있으며 제1명사구와 제2명사구의 층위가 다르다는 견지에서 두 논항은 모두 같은 층위의 내부 논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격 중출 구문은 (23b)의 통사 구조로 외부 논항이 결여된, 모두 내부 논항만 가지는 비대격 술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

5) 김건희(2006:79)에서는 형용사가 취하는 다양한 논항들로 대상(theme), 비교대상 및 비교영역(criterion), 이유 논항(reason), 원인 논항(cause), 영향 대상(affected theme)을 들었다.

이다. 즉 (23b)의 통사구조는 다음과 같이 다층적인 비능격의 구조로 볼 수 있다.

(24) [<sub>AP</sub> NP1-이 [<sub>AP</sub> NP2-가 A]]

한국어 형용사가 비대격 술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전반에 대한 고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다만 주격중출 구문이 비대격의 근거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층적인 비능격의 구조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며 논지를 마무리 하겠다.

## 5. 동사와 형용사 구분

### 5.1. 형용사 범주에 관한 유형론적 논의

1980년대 이후 유형론적 논의에서는 Dixon(1979) 등을 필두로 하여 형용사 범주가 언어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Dixon(2004:12)에서는 형용사는 언어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Dixon(1979) 이후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 자신의 주장을 바꾼 것을 인정하였다. Baker(2003:76)에서는 형용사 범주와 비대격 여부(diagnostics)에 대해 다양한 언어의 형태, 통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동사와 구별되는 형용사 범주가 존재하는 언어에서는 형용사는 비대격을 보이지 않으며 비대격에 대한 초기의 주장인 Perlmutter & Postal(1984)의 일반화를 다음과 같이 다시 언급하였다. ‘predicates expressed by adjectives in English are unaccusative *unless they happen to actually be adjectives*’ (영어에서 실제로 형용사로 나타나지(가능하지) 않는 형용사가 존재한다면 그 형용사들이 바로 비대격이다.)

기존 논의에서 비대격 술어로 보는 ‘술직하다’의 경우 일반적인 형용사와

동사와 구별 기준을 적용해 살펴보면 각각 형용사, 동사로서 명확한 형태, 통사적 차이가 나타난다.

<표 1>

	솔직하다	달리다
-고 있- 공기	X (*솔직하고 있다)	O
-는/ㄴ-(현재 종결형 어미) 결합	X (*솔직한다)	O
-는/ㄴ-(현재 관형형 어미) 결합	X (*솔직하는 사람)	O
정도 부사 수식 가능	O (매우 솔직하다)	X

이처럼 다양한 형태, 통사적 차이가 있지만 ‘솔직하지(를/가) 않다’라는 비대격의 근거로 제시된 소위 ‘장형부정 구문의 격교체’에 맞다고 하여 비대격 서술어로 보아 동사와 형용사의 범주적 경계를 허물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 5.2. 한국어 동사와 형용사 구별 기준

1990년대 이후 한국어 형용사와 동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주로 형태, 통사론적인 기준이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의미론적인 기준도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Dixon(2004:3-5)에서는 형용사의 의미 유형을 13개로 나누고 이들을 또한 3부류로 나누어 1부류에 속하는 4개의 핵심 의미 유형을 형용사가 나타내면 그 언어는 형용사 범주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Dixon(2004)의 의미 유형의 세 부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5) a. 4개의 핵심 의미 유형으로 크고 작은 형용사 부류와 관련됨  
 1.dimension, 2.age, 3.value, 4.colour
- b. 부가적인 의미 유형으로 중 부류 및 큰 규모의 형용사 부류와 관련됨

- 5.physical property, 6.human propensity, 7.speed
- c. 대규모의 형용사 부류를 가진 몇몇 언어의 의미 유형
- 8.difficulty, 9.similarity, 10.qualification, 11.quantification,  
12.position, 13.cardinal numbers

이러한 의미적 접근에 대해 Sohn(2004:225)에서도 한국어 형용사 중에서 단일어의 고유 형용사가 위 4가지 핵심 의미 유형 ‘dimension, age, value, colour’를 나타내고 따라서 형용사 범주가 견재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Sohn(2004:239-241)에서는 형용사와 동사, 혹은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가 중첩되는 것에 대해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는 고유어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 중첩이 나타나지만 한자어의 경우 명사, 동사, 형용사 모두에서 의미 중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의미론적인 기준에 대해 가장 비판받는 것은 형용사의 동일한 의미가 다른 품사로도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자어의 경우 명사, 동사, 형용사 모두 의미 중첩이 나타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형용사의 범주적 정체성에 비해 비교적 도전받지 않는 확고한 범주인 명사, 동사의 정체성까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Dixon(2004)의 의미 유형을 위시한 의미론적 기준도 형태, 통사적 기준 못지 않게 그 역할을 차지해야 함을 주장한다.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들은 주로 5~6개 내외의 형태, 통사론적 기준이다. 예를 들면 현재시제 ‘-는/ㄴ-’ 결합, ‘-고 있-’ 공기 여부, 정도 부사의 수식 가능성, 명령형, 청유형 등의 종결어미와의 결합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논의에 대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미론적 기준도 형태, 통사론적 구별 기준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태, 통사론적 구별 기준도 다양화하고, 단순히 이분법적인 구별이 아니라 ‘전형적, 비전형적’과 같이 구별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동사와 형용사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주로 논란이 된 것은 어떤 기준으로는 형용사이지만 어떤 기준으로는 동사인 것들인 예외적인 부류이다. 형용사의 분류 기준을 다양화하여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

는 부류도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부류들도 존재함을 인정하여 소위 핵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형용사와 그렇지 못한 비전형적인 형용사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는 ‘분류 기준들 간의 순위’도 정해져야 하고, 무엇보다 고찰 범위의 형용사를 어떤 대상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되는데 고려 대상은 의미적 기준에 의해 언어보편론적으로 형용사의 13개의 핵심 의미 유형을 나타내는 모든 용언들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Sohn(2004:229)에서는 기존의 구별 기준에서 나아가 26개의 기준을 마련하였다<표 2>. 이러한 기준들은 형태통사적 특질이지만 형태적, 통사적 특질로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이는가도 살펴보고 있어(14, 16,17) 기존 기준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6개의 기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사, 형용사가 어떤 형태로든 차이점을 보이는 류 13개 항목  
(3,4,5,6,7,8,14,16,17,23,24,25,26)

둘째 완전히 일치된 공통점을 보이는 류 4개 항목  
(1,2,9,15)

셋째 동사와 형용사가 정확히 구별되는 류(yes/no) 9개 항목  
(10,11,12,13,18,19,20,21,22)

첫째 부류인 동사, 형용사가 차이점을 보이는 13개 항목에서 (yes/rare, yes/only some)으로 정도성에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5개이다(5, 6, 23, 24, 26). 따라서 동사, 형용사가 완전히 일치된 공통점을 보이거나 정도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9개(첫째 부류 5개, 둘째 부류 4개)이며 또한 동사, 형용사가 정확히 구별되는 것은 9개(셋째 부류)로 동사, 형용사 변별 기준에서 동사, 형용사의 차이 정도가 반반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동사, 형용사를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형용사와 동사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

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사도 불완전 동사가 있듯이 형용사도 전형적이지 않은 형용사가 존재하는 것이다.<sup>6)</sup> 따라서 언어보편적으로 형용사의 의미 유형을 실현하는 용언들을 대상으로 동사와 구별되는 형태, 통사적 기준은 Sohn(2004)처럼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도성에 근거하여 형용사들을 ‘전형적인 형용사와 비전형적인 형용사’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류는 하지 못했지만 추후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면 좋을 것이다.

---

6) 끝으로 Gordon(1998:54)에서는 Quirk et al. (1985:402-4)의 연구를 토대로 전형성의 정도로 형용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전형적 환경에 나타나는 형용사들>

Pre-head modifiers in nominal structures(a big parcel)

Complements of a copula in clause structure(he is kind)

Complements expressing the result of the process denoted by the verb(he shot him dead, he pulled the tooth loose)

Postpositive modifiers of certain types of nominal expression(something nice)

<비전형적 환경에 나타나는 형용사들>

Complements of prepositions(in short, for good, etc)

Premodifiers of certain adjectives(pale blue, red hot)

Adjuncts in clauses(I'm receiving you loud and clear)

Contingent adjective clauses(Strange, I never suspected him)

Supplementive adjective clauses(Soaking wet, he walked into the room)

위 분류에서 비전형적 환경에 나타나는 형용사들이 흥미로운데 형용사를 수식한 다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Gordon(1998)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형용사와 부사의 분포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형용사와 부사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lt;표 2&gt;

Morphosyntactic features	Verbs	Adjectives
1. All bound-requiring a clause-type ender	yes	yes
2. Inflects in all grammatical categories	yes	yes
3. Indicative suffix form within predicate slot	-nun after C -n after V	zero
4. Can occur in propositive and imperative	yes	rare
5. Can occur in promissive and admonitive	yes	rare
6. Function of clause-ender -ala/-ela	imperative	exclamatory
7. Indicative suffix form in relative clause	-nu	zero
8. Past relativizer form	-un after C -n after V	N/A
9. Can occur with nominalizers and conjunctive suffixes	yes	yes
10. Can take conjunctive suffixes -(u)lyeko, -(u)le,-koca, -nulako, -kose, -nuni	yes	no
11. Can take intensifier -ti	no	yes
12. Can have derivational affixes che-, cis-, nay-, pi-, sel-, tes, yes-, -keli, -chi, -coli, -ttuli, -tay	yes	no
13. Can have derivational affixes -sulep, -lop, -tap....	no	yes
14. Can have derivational suffix -ci	yes (means process)	yes (means state)
15. Can have causative suffixes	yes	yes (derives transitive verbs)
16. Meanings of noun+hata	activity or process	property or state
17. Meanings of reduplication	repeating or continuing action	continuing state
18. Can form adverbs	no	yes
19. Can form -ko iss progressive	yes	no
20. Can form -e/a iss resultative	yes	no
21. Can occur in comparative and superlative	no	yes
22. Can occur with phrases -ki wihaye, -ko sipta	yes	no
23. Can occur with all auxiliary predicates	yes	only some
24. Can occur with all thematic roles	yes	only some
25. Case marking of object	accusative (l)ul	nominative ka/i
26. Can occur with negative adverbs an, mos	both an and mos	only an



## 6.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형용사와 비대격 관련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비대격 진단 논거들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한국어 형용사를 전적으로 비대격 용언으로 분류할 수 없고, 동사와 구별하는 기준도 의미적 기준을 토대로 좀 더 유연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어가 비대격 언어인지 아니면 대격 언어인지 여부를 알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부류를 유독 비대격 언어로 분류하는 경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으로 거대한 비대격 이론에 대한 검증은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내외의 비대격 이론에 대하여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특히 기존의 한국어 비대격 진단 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비대격 논의가 시작된 통사적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어 형용사의 통사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형용사에 적용된 비대격 이론의 문제점들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비대격 진단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고 둘째는 형용사와 동사 경계에 있는 용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비대격 진단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용사가 비대격 술어라는 주장은 동사와의 변별성이 약하다는 문제 의식으로 제기되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도 비대격 술어에 관련된 논의와 함께 ‘5장 동사와 형용사 구분’이라는 chapter를 마련한 것이지만 실제 형용사들에 대한 구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하였다.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비대격 이론의 흐름과 한국어에 적용된 논거들에 대한 검토로 실제 형용사를 토대로 한 분석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비대격 이론에 대한 검증을 토대로 한국어 형용사를 보는 시각을 올바르게 확보한다면 실제 형용사들에 대하여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기준을 세워 어떤 형용사들이 전형적인 형용사의 모습을 보이며 어떤 부류의 형용사들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올바른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며 이는 추후의 논문을 통해 고찰해 보겠다.

## 참고문헌

- 고광주(2001), 『국어의 능력성 연구』, 월인.
- 고광주(2002), 「국어의 ‘어렵다’류 구문 연구」, 『한국어학』 제15집, 한국어학회. 1-24.
- 고영근(1986) 「능력성과 국어의 통사 구조」, 『한글』 192, 한글학회 pp. 43-76.
- 고재설(1999), 「주격중출문과 형용사의 내부 주어」, 『언어』 24-4, pp. 597-617.
- 김건희(2001), 「VP Shells와 ‘한자어 명사+하다’에 대하여」, 『언어연구』 21, pp. 1-20.
- 김건희(2005), 『한국어 형용사의 논항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건희(2006), 「형용사문의 주어와 의미역 설정에 관하여」, 『언어학』 44, pp. 65-84.
- 유현경(1998), 『한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건수(2005), 「상태성 ‘-하다’구문의 통사구조와 특성」, 『비교문화연구』 9-2, 경희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201-231.
- 이선희(2000), 「조사{-를}의 실현과 비대격 술어 범주의 설정」, 『연세어문학』 제 32호, 45-68.
- 이성현, 장재성, 홍재성(2004), 「불·한 형용사 전산 DB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 -불·한 기계번역을 위한 이개어 전자사전의 구축을 위하여-」, 『프랑스어문 교육』 제17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19-253.
- Babby, L.(1989), “Subjectlessness, external subcategorization, and the Projection Principle”. *Zbornik matice srpske za filologiju i lingvistiku* 32, 7-40.
- Babby, L.(1994), “A theta-theoretic analysis of adversity impersonal sentences in Russian”.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The MIT Meeting, S. Avrutin, S. Franks and L. Progovac (eds.) Ann Arbor, MI:Michigan Slavic Publications, 25-67.
- Baker, C. Mark.(2003), *Lexical Categories: Verbs, Nouns and Adjectives*. Cambridge, MA: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nis, H.(2000), “Unergative Adjectives and Psych verbs”, *The Unaccusative Puzzle*, A. Alexiadou, E. E. Anagnostopoulou and M. Everaert(eds), 84-113, Oxford University Press.
- Burzio, L.(1986), *Italian Syntax: A Government-Binding Approach*. Dordrecht: Reidel.
- Chomsky, N.(1995), *The Minimalist Program*, The MIT Press, Cambridge.
- Choe, Hyon-Sook(2005), “Some Distributional Differences Between Adjectives and Verbs in Korean: A reply to Yeo”. *어학연구* 41권 2호 331-361.
- Cinque, G.(1990), “Ergative adjectives and the lexicalist hypothesi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8, 1-39.
- Dixon, R. M. W.(1977), “Where have all the adjectives gone?”, *Studies in Language* 1.
- Dixon, R. M. W.(2004), “Adjective clas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Explorations in Linguistic Typology), Ed. by R.M. Dixon, Oxford.
- Dowty, David(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 Gordon H. Tucker(1998), “Adjectives in English”, *The Lexicogrammar of Adjectives*, 50-60.
- Kim, Young-joo(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 Lavine, J.(2000), *Topics in the syntax of nonagreeing predicates in Slavic*.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26. Cambridge, Mass.: MIT Press
- Perlmutter, D.M.(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57-189. Berkeley Linguistic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1985), *A Contemporary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s*. London: Longman.

- Rosen, C.(1984), "The Interface between Semantic Roles and Initial Grammatical Relations." In Perlmutter, D.M. and C.Rosen (eds),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2*. Chicago, III.: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hn, H.(2004), "The adjective classes in Korean".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Explorations in Linguistic Typology), Ed. by R.M. Dixon, Oxford.
- Stowell, T. (1991), "The alignment of arguments in adjective phrases", *Syntax and semantics* 25, 105-135.
- Van Valin, Robert D.Jr.(1990), "Semantic parameters of split intransitivity". *Language*, 66:221-60.
- Wechsler, Stephen(1996), "Explaining resultatives without unaccusativit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Wechsler, Steven, and Lee Yae-Sheik.(1995), "Korean ECM: semantic and pragmatic factors". Paper read at the 69th annual meetings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New Orleans, January 7, 1995.
- Wetzer, H.(1992), "'Nouny" and "Verby", adjectivals: a typology of predicative adjectival constructions", in Kefer, M. and J. Van der Auwera(eds), *Meaning and Grammar*, Mouton de Gruyter, 223-262.
- Williams, E.(1981), "Argument Structure and Morphology", *The Linguistic Review* 1, 81-114.
- Yeo, Seungju.(2004), "What is it Like Being an adjective in Korean?", *어학연구* 40권 4호 1013-1033.

원고 접수일: 2008년 10월 20일

심사 완료일: 2008년 11월 11일

계재 확정일: 2008년 12월 2일

ABSTRACT

---

## The Korean adjectives: Unaccusative predicates?

Kim, Keon-hee

The Korean adjectives are often indistinguishable from verbs in the viewpoint of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riterion which tell adjectives from verbs, so the categorial identity of the Korean adjectives have been questioned. In this results, the Korean adjectives are often regarded as unaccusative predicates which is a kind of verb. But it must be given a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deciding whether the Korean adjectives are unaccusative predicates or not. First, the adjectives, so called verby adjectives, which are indistinguishable from verbs don't reveal the unaccusativity. Second, If the adjectives which reveal some characteristics of unacuusativity satisfy the general criterion of adjective-classification, those adjectives must be regarded as adjectives not unaccusative predicates. Third, diagnostics have been posited for unaccusativity in Korean is not right in the stream of the unaccusativity discussion since the Perlmutter(1978)'s argument. Fourth, the criterion which tell adjectives from verbs must be reconsidered with flexibility in the viewpoint of degrees, for example, typical adjectives and non-typical adjectives.